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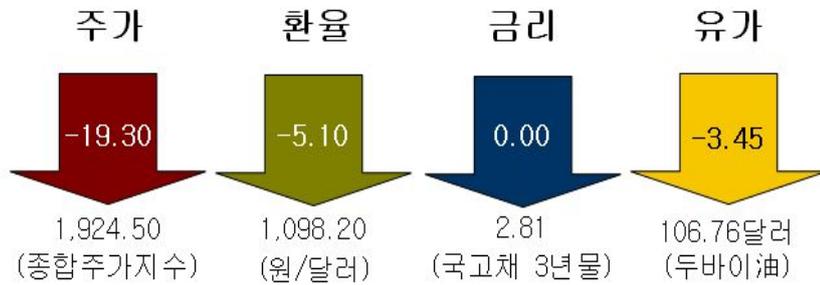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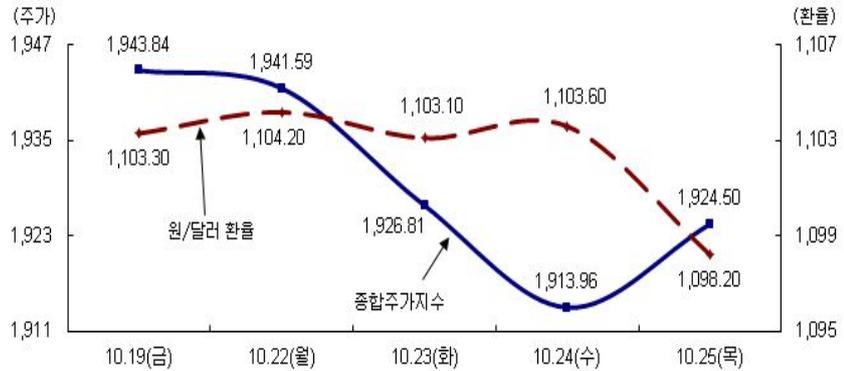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응 과제
- 2만 달러 함정 벗어나기 위한 10대 정책과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19~10.25)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응 과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김 동 열 수석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응 과제 >

한국경제의 현황 및 구조적 문제점	
현황	- 2만 달러 함정과 2% 저성장
5大 구조적 문제점 (다운파이버 Down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성장률 급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대로 떨어져 - 내수 위축: 국내 소비 및 투자의 부진 계속되고 있음 - 소득분배 악화: 세계화, 정보화, 고용불안 등으로 양극화 심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구구조 악화 - 남북관계 악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는 경제에도 악영향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목표	
국내외환경 (내우외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담론'이 복지 확대와 경제 민주화에 밀리고 있음 - 세계경제는 3년 연속 3%대 저성장 기조, 새로운 위기에 취약 - 국민들은 차기정부에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고성장'을 요구
5大 발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성장동력 육성: 서비스 부품소재 바이오 나노 등 집중 투자 - 생태계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글로벌화, 공동체인프라 투자 - 인적자본 고도화: 맞춤형 평생학습체제, 고용 유연안정성 제고 - 행복인프라 확충: 사회자본 확충, 삶의 질 제고, 정부 혁신 - 남북경협 내실화: 인도적 교류 활성화, 남북 상생협력 관계 정착

시사점과 과제	
시사점	-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10대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내수 기반 확충, ②일류한국시대 개막, ③R&D투자 효율성 제고 - ④중기 생태계 글로벌화, ⑤금융의 선순환구조 확립 - ⑥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 ⑦고용의 유연안정성 제고 - ⑧공동체 인프라투자 확대, ⑨사회적 자본의 확충 - ⑩한반도 공동체의 상생 발전

Executive Summary

□ 한국경제 구조적 문제점과 대응 과제 - 2만 달러 함정, '다운 5' 한국경제

1. 한국경제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점 : 2만 달러 함정, '다운 파이브'

선진 23개국의 1인당 GDP가 연평균 5.2%의 증가율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에 도달하는 데 평균 8년 정도 걸린 반면, 한국은 지난 2007년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4년간 연평균 1.0%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 향후 1인당 GDP 증가율이 3% 미만(2.9%)에 그친다면 3만 달러 도달하는 데 10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 같은 2만 달러 함정과 저성장 고착화의 우려 뒤에는 한국경제의 다섯 가지 구조적 문제점(다운 파이브, Down 5)이 자리하고 있다. 즉, ①'잠재성장률 3%대 하락', ②'내수 위축과 내외수 불균형', ③'소득분배 악화와 중산층 감소', ④'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조 악화', ⑤'남북관계의 악화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이라는 5가지 묵은 숙제를 해결해야 한국경제의 재도약이 가능하다.

2.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목표 : 5대 발전 목표

2012년 현재 한국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 세계경제는 미국의 회복 부진과 유럽위기 지속 등으로 내년에도 3년 연속 3%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며, 국내에서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복지 확대'와 '경제 민주화'라는 담론이 '성장' 논의를 압도하고 있다. 반면,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차기정부에 대해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4% 이상의 고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국내외 환경을 종합해 볼 때,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발전 목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의 미들파워 시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여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공동체 인프라(보육, 교육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가 한 단계 더 질적으로 고도화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섯 가지 발전 목표가 달성되어야 한다. 즉,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①'미래 성장동력 육성', ②'생태계 경쟁력 제고', ③'인적자원 고도화', ④'행복인프라 확충', ⑤'남북 경제협력 내실화'라는 5가지 새로운 발전 목표의 달성이 필요하다.

3. 시사점과 과제 : 10대 세부 정책 과제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으로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 고도화와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마지막 기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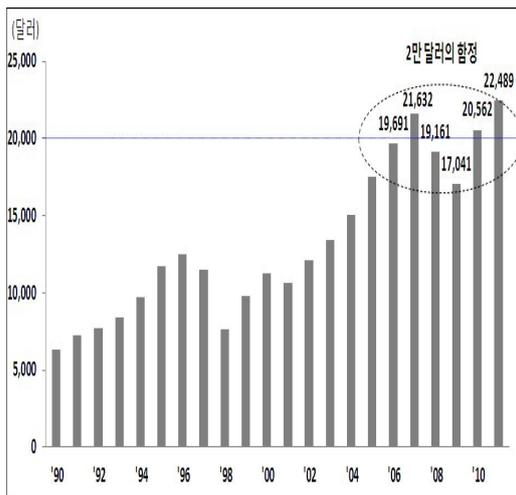
한국경제의 5대 새로운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10대 세부 정책 과제의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①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자영업 구조조정을 통한 내수기반의 확충, ②부품소재산업의 수출산업화 등 일류한국(Korea As No. 1) 시대 개막 ③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④기업 생태계의 글로벌화, ⑤보육 교육 등 공동체 인프라 투자의 확대, ⑥금융의 선순환 구조 확립, ⑦인적 자원 경쟁력 제고 ⑧고용의 유연안정성 제고 ⑨신뢰와 투명성 제고 등 사회자본 확충, ⑩한반도 공동체의 상생 발전 등이다.

1. 한국경제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점

(1) 현황 : 2만 달러 함정과 2% 저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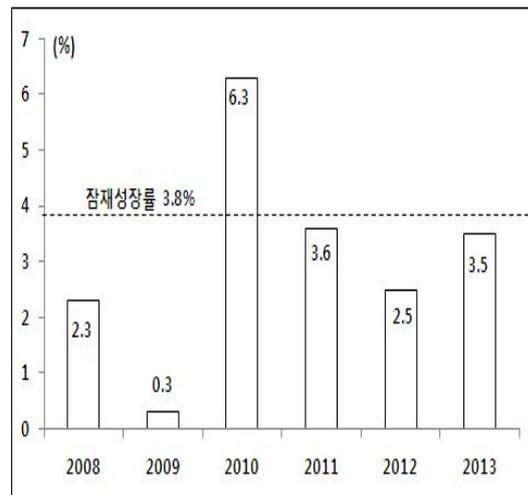
- (2만 달러 함정) 한국은 지난 2007년 처음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5년 동안 2만3천 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2만 달러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
 - 선진 23개국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도약하는 데 평균 5.2%의 증가율로 평균 8.0년이 걸렸고, 4만 달러 이상 선진 19개국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14.2년¹⁾이었음
 - 한국은 지난 4년('07-'11)간 1인당GDP 증가율이 연평균 1.0%에 그쳐, 향후 3%미만(2.9%) 증가율이 계속된다면 3만 달러 도달에 10년 더 소요될 전망²⁾
- (2% 저성장) 2012년 한국경제의 실질GDP 증가율이 2.5%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남유럽 국가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5% 정도로 급락
 - 2012년 경제성장률이 2.5% 정도에 그칠 전망이고 2013년 성장률도 3.5% 내외로 전망되어, 잠재성장률(3.8%)을 하회하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음

<2만 달러 함정>



자료 : 한국은행

<저성장 추이 지속>



자료: 한국은행 / 현대경제연구원(HRI)
주: '12년과 '13년 성장률은 HRI 전망치

1) World Bank의 'World Data Bank' 자료를 활용하여 3만달러 경험국 23개국, 4만달러 경험국 18개국의 1인당 GDP 증가 추이를 자체 분석한 결과.
2) 환율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1인당 GDP 증가율을 시산한 결과.

(2) 구조적 문제점 : '다운 파이브(Down 5)'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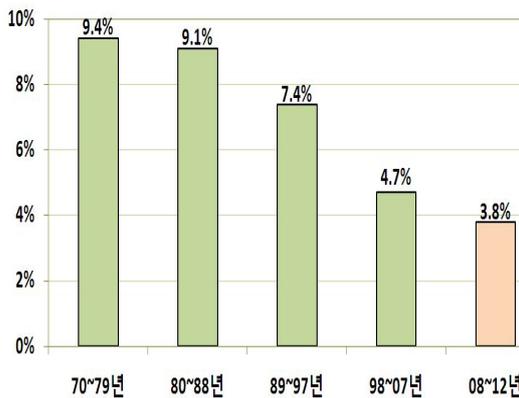
○ (잠재성장률 급락) 1990년대 7%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8%로 급락하여, 성장잠재력을 되살리는 것이 큰 과제로 대두됨

- 1990년대 7%, 2000년대 초반 4~5%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8%로 급락했으며,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과 미국경기의 회복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가 당분간 쉽지 않음
- 저출산·고령화로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하여, 인적 자원의 고도화와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

○ (내수 위축) 수출중심의 성장전략에 따라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와 투자를 합친 내수의 상대적 비중과 성장 기여도는 하락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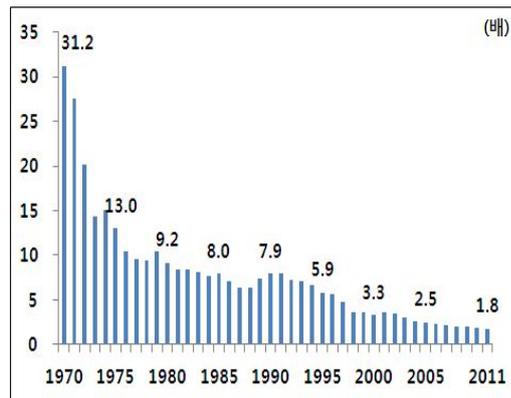
- 수출의 증가율이 내수의 증가율을 계속 상회하고 있으며,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수출입/국민총소득)는 1990년 77.5%에서 2011년 113.2%까지 높아짐
- 실질가치 기준 내수/수출 비율은 1970년 31.2배에서 2011년 1.8배로 크게 낮아짐
- 소비의 성장기여도는 금융위기 이후('08~'11) 연평균 1.7%p로 떨어졌으며, 총투자의 성장기여도는 금융위기 이후('08~'11) 0%p로 크게 하락함³⁾
-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⁴⁾는 내수 위축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잠재성장률의 급락>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계산.
주 : HP필터링을 이용.

<내수/수출 비율의 하락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 이용 HRI 자체 계산.
주: 내수=소비+투자, 수출은 서비스 포함

3) 현대경제연구원, '잠재성장률의 위기', 경제주평 12-03(통권 제474호), 2012.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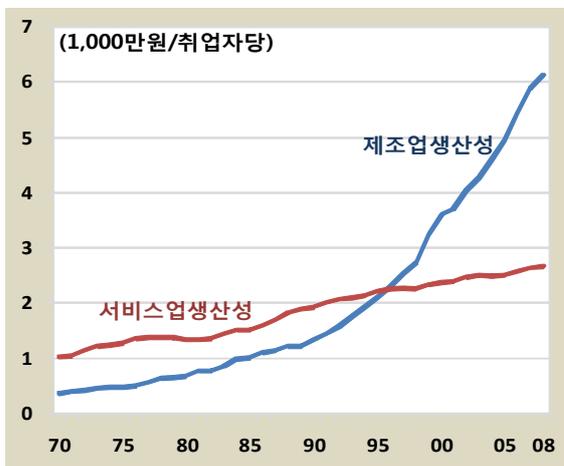
4)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현재 155.5%까지 올라와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09년 기준 80%로서 OECD평균 74%보다 높음

- 내수 위축은 서비스업의 부진과 구조조정, 낮은 생산성으로 연결되고 있음
 -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1970년 약 350만원에서 2008년 6,100만원으로 약 17배가 상승한 반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2.7배 상승하는 데에 그침
 - 국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90년 G7 평균의 38% 수준에서 2007년에 70%로 상승하였으나,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G7평균의 57% 수준에서 42%로 하락⁵⁾

○ (소득분배 악화와 중산층 감소)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악화로 중산층 비중은 2011년 현재 64.0%⁶⁾까지 감소했으며, 삶의 질 순위는 낮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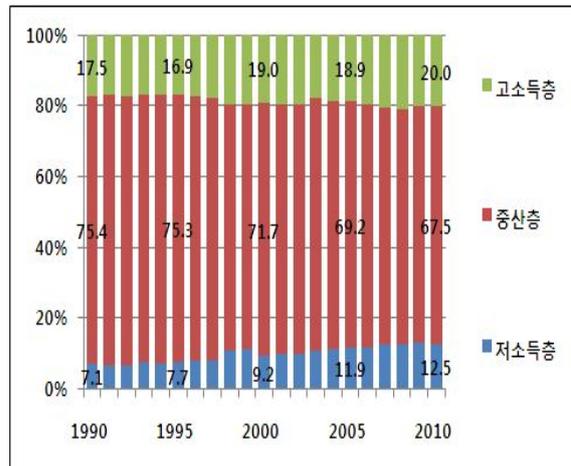
-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중산층 비중은 1990년 75.4%에서 2011년에 67.7%까지 하락했으며, 전체가구 기준으로는 64.0%에 불과함
 - 소득분배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도 추세적으로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나빠지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음
- 1인당 국민소득이 최근 2만 3천 달러 수준에 도달하고 국가 GDP 순위는 15위로 상승했지만, 삶의 질 순위는 27위의 낮은 수준⁷⁾에 머물고 있음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



자료 : OECD STAN 통계를 이용한 자체계산
주 : 실질가격 기준

<중산층의 감소 추이>



자료 : 통계청
주 : 2인 이상 도시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5) 현대경제연구원, VIP리포트,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정체 의 원인과 시사점', 2010.6.16
 6) 전체가구 가처분소득 기준임. 1인 가구와 농촌가구를 포함하는 '전체가구' 기준 중산층 비중은 2006년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1990년부터 현재까지 중산층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려면, '도시 2인 이상 가구' 기준을 이용해야 함.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비중은 1990년 75.4%에 달했음
 7)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15년 동안 약 1.8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삶의 질 지수는 100에서 132.3으로 1.3배 정도 완만하게 개선되는데 그쳤다.(현대경제연구원, '소득과 삶의 질 격차 확대되고 있다', 경제주평 12-05, 201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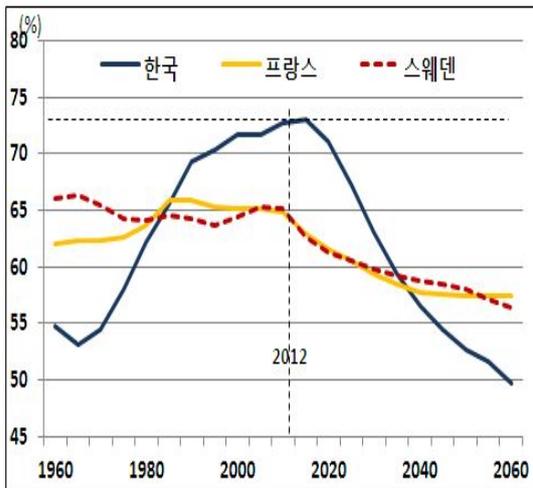
○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인구구조가 악화되고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질 전망

- 206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주요국 중 최저로 떨어질 전망⁸⁾
-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0년 72.8%에서 2060년 49.7%로 23.1%p나 급락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1.0%에서 40.1%로 29.1%p 급등
- 총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할 전망이며, 총부양비는 2010년 37.3에서 2060년 101.0로 치솟음

○ (남북관계 악화) 대립적 남북관계의 지속과 동북아시아의 영토분쟁 확산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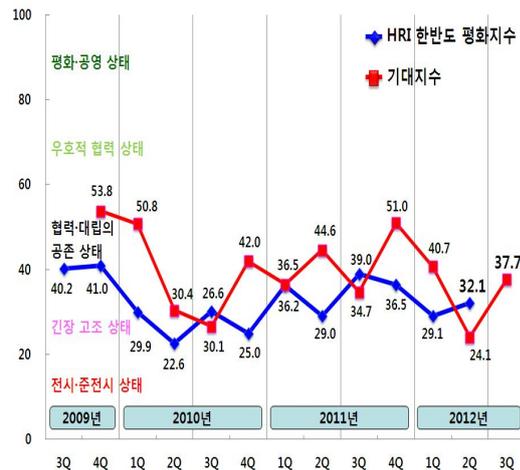
- 2008년 이후 개성공단 확장과 금강산 관광 등 경제협력사업이 중단되고 인도적 교류마저 경색됨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의 한반도 평화지수가 2010년 40 이하로 내려간 이후 계속 회복하면서 '긴장고조상태'에서 머무르고 있음
- 남북관계의 경색과 더불어 영토를 둘러싼 한·중·일 3국의 분쟁이 악화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주요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자료 : UN, 통계청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09년 3분기부터, 설문조사 형식

8) UN(2011),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0 Revision. 주요국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호주

2.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목표

(1) 한국경제의 대내외 환경 : 내우외환

○ (복지와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성장과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음

- 2012년 총선과 대선의 가장 큰 쟁점으로 복지과 경제민주화가 자리잡음에 따라, 2013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 (세계경제 침체) 2013년에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3%대에 머물 전망이며, 2011년 이후 3년 연속 3%대의 저성장 기조 지속⁹⁾

- 2013년 선진국 성장률은 미국의 경기부진과 유럽위기 지속으로 2011년 이후 3년 연속 1%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며, 세계경제 성장률은 3년 연속 3%대에 그칠 전망으로, 새로운 위기의 가능성도 상존함

- 미국 : 주택 경기의 점진적 회복과 소비 회복, 제조업 생산의 증대 등으로 성장률이 2%대를 기록할 전망
- 일본 : 재건수요가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으로 하락할 전망
- 유로존 :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0%대에 그칠 전망
- 신흥개도국 : 신정부의 부양책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소폭 개선되어 8%대 초반을 기록하겠지만, 개도국 전체의 회복세는 미약할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 (%) >

구분	2010	2011	2012(E)			2013(E)		
			'12.4월	'12.7월	'12.10월	'12.4월	'12.7월	'12.10월
세계	5.1	3.8	3.5	3.5	3.3	4.1	3.9	3.6
선진국	3.0	1.6	1.4	1.4	1.3	2.0	1.9	1.5
미국	2.4	1.8	2.1	2.0	2.2	2.4	2.3	2.1
일본	4.5	-0.8	2.0	2.4	2.2	1.7	1.5	1.2
유로존	2.0	1.4	-0.3	-0.3	-0.4	0.9	0.7	0.2
신흥개도국	7.4	6.2	5.7	5.6	5.3	6.0	5.9	5.6
중국	10.4	9.2	8.2	8.0	7.8	8.8	8.5	8.2
인도	10.1	6.8	6.9	6.1	4.9	7.3	6.5	6.0
아세안-5	7.0	4.5	5.4	5.4	5.4	6.2	6.1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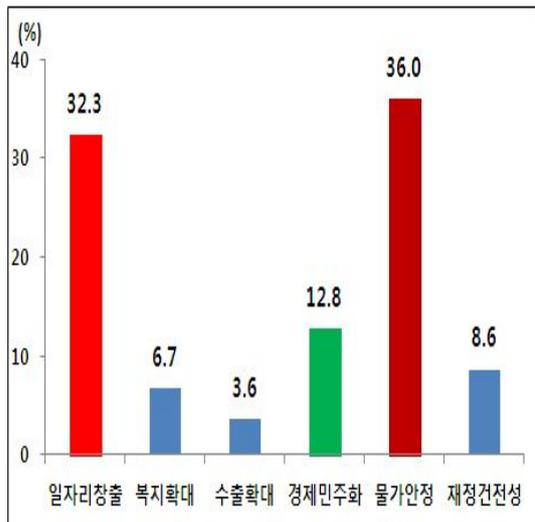
자료 : IMF

9)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국내경제 전망과 정책과제', 현안과 과제 12-44, 2012.10.10

(2) 국민들이 원하는 차기정부 주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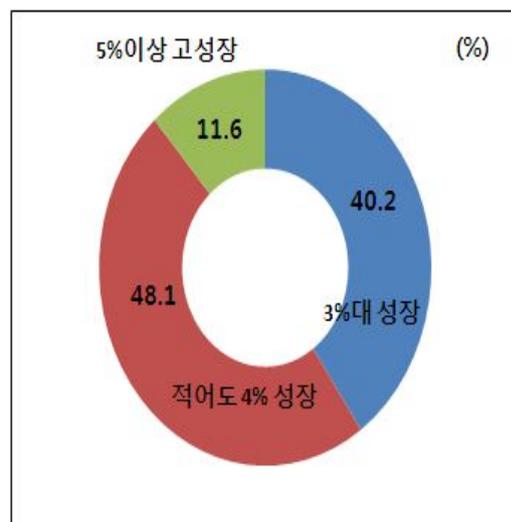
- (물가, 일자리, 고성장) 국민들이 바라는 차기정부 주요 과제¹⁰⁾는 ‘물가 안정’(36.0%), ‘일자리 창출’(32.3%)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60%정도가 4% 이상의 고성장을 원하고 있음
 - 국민들은 실질 소득과 연계되는 ‘물가 안정’(36.0%)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으며, 소득의 근원인 ‘일자리 창출’(32.3%)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 대선 국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12.8%)와 ‘복지 확대’(6.7%)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음
 - ‘일자리 창출’(32.3%)에 대한 요구는 50대 이상과 20대, 자영업자, 서울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청년실업과 노인일자리 대책이 시급함
 - (4% 이상 성장) 과거 4~5%의 성장에 비해 올해는 어느 정도의 성장률이 적정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최소 4% 이상’(48.1%), ‘3%대 성장’(40.2%), ‘5%이상 고성장’(11.6%)의 順으로 응답
 - 응답자의 60%정도가 ‘4% 이상의 성장’이 적정하다고 답하여 국민들은 여전히 높은 성장을 희망하고 있으며, 20대 젊은 층일수록 고성장을 선호함

<차기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국민들이 생각하는 적정 성장률>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10) 현대경제연구원은 ‘차기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지난 7월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을 거쳐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 3.08)

(3)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목표

① 미래 성장동력 육성 (Future Growth Engine Up)

○ 부품소재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바이오 나노 로봇 등 新성장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미래의 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함

- 의료, 법률, 교육, 디자인, 컨설팅 등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아울러,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바이오 나노 로봇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하고 투자함으로써, 미래의 성장동력을 육성함
- 이를 통해 내수와 외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외 부충격에 따른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② 생태계 경쟁력 제고 (Biz. Ecosystem Upgrade)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개별적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및 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교육과 보육 등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금융의 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제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
-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둘러싼 제로섬 방식의 논쟁에서 벗어나, ‘경제생태계’ 구축 방안을 둘러싼 정책 경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③ 인적자본 고도화 (Human Capital Up)

○ 고령화로 인해 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탄력근무 활성화, 고학력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 유인,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고용의 유연안정성 제고 등 인적 자본 고도화 전략이 필요함

-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저하되는 성장잠재력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고 인적 자본을 고도화함으로써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혁신적으로 전환해야 함

- 인적 자본의 고도화를 위한 공교육의 혁신, 평생교육훈련 활성화, 탄력근무 활성화, 고용의 유연안정성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위해 탄력근무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보이지 않는 남녀차별(glass ceiling)을 제거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④ 행복인프라 확충 (Happiness Infra Up)

○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치주의 확립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으로 '사회적 자본'을 높여가며, 나아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행복인프라'를 확충함

-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청렴도'를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올릴 경우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있다고 기대됨
- 현대경제연구원(2012)의 분석¹¹⁾에 따르면, 청렴도를 OECD 수준으로 올릴 경우 우리나라의 연평균 1인당 명목 GDP는 138.5달러, 연평균 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 약 0.65%p 상승할 것으로 기대
- 사회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며, 저개발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늘리는 등 모범적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국가브랜드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⑤ 남북경협 내실화 (Economic Cooperation Up)

○ 남북이 정경분리의 원칙을 확립하고, 인도적 교류를 활성화하며, 신뢰와 협력의 기반 위에서 경제협력을 내실화

- 2012년 현재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은 5년 전에 비해 크게 후퇴되어 있고, 상호간의 신뢰도 낮아져 있는 상태인 바, 차기 정부에서는 다시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경제공동체 구축으로 나아가야 함
-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를 기본 토대로 삼고, 정경분리 원칙을 확고히 함으로써, 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고히 구축함

11) 현대경제연구원, '부패와 경제성장', 경제주평 12-18, 2012.5.25

3. 시사점과 과제 : 10대 정책과제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으로 국내외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반전시켜,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마지막 계기로 삼아야 함
 - 최근 10%내외의 고속 성장을 보여 온 중국이 2012년에는 7.5% 내외로 주춤하고 있으며 확실한 G2 시대가 열리기 이전에, 한국경제가 명실상부한 4만 달러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력을 집중해야 함
 - 2012년에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의 '20-50클럽'에 가입했지만, 국민소득 2만 달러는 이미 2007년에 달성한 이래 5년 이상 정체 상태에 있으므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의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함
-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필요한 5대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대 세부 정책과제의 실천이 필요함
 - 5가지 발전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내수 기반의 확충, 고용의 유연안정성 제고 등 10가지 세부 정책과제의 실천이 필요함
 - 미래 성장동력 육성: ①내수기반의 확충: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자영업 구조조정, ②일류한국(Korea As No.1)시대의 개막: 부품소재산업의 수출산업화, 5대 글로벌 New Top 산업 육성 등 ③연구개발(R&D)투자의 효율성 제고 : 공공부문 연구인력 확충, 민관 연구개발 역할의 재정립 등
 - 생태계 경쟁력 제고: ④기업 생태계 글로벌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설립, 히든챔피언 5백개 육성 등, ⑤금융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중소기업 전담 지역은행 설립, 투자은행 기능 활성화, 금융의 글로벌화 등
 - 인적자본 고도화: ⑥인적 자원의 경쟁력 제고 : 수요자 맞춤형 교육 혁신, 평생교육훈련체제 확립 등, ⑦고용의 유연안정성 제고 : 임금의 유연화, 탄력근무 활성화, 실업 안전망 강화 등
 - 행복인프라 확충: ⑧공동체 인프라 투자 확대: 교육 보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 확대, 주거복지 수준 제고 등 ⑨신뢰 등 사회 자본 고도화
 - 남북 경제협력 내실화: ⑩한반도 공동체의 상생 발전 : 남북 상호 신뢰를 토대로 남북간 경제협력 내실화

< 차기정부의 5대 발전목표, 10대 정책과제, 과제별 주요 내용 >

발전목표	10대 세부 정책과제	주요 내용
① 미래 성장동력 육성	① 내수 기반의 확충	- 문화 관광 의료 등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 국내 투자환경 개선 - 자영업 구조조정
	② 일류한국(Korea As No.1)시대 개막	- 소재·부품 산업의 차세대 수출산업화 - 5대 글로벌 New Top (5NT) 산업 육성 - 인프라 수출 활성화, 농업르네상스
	③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공공부문 연구인력 확충 - 민관 R&D 역할 재정립 - 기술금융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기술 보호
② 생태계 경쟁력 제고	④ 기업 생태계 글로벌화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코리아센터) 설립 - 히든챔피언 육성 - 중소기업 근무 인센티브 강화
	⑤ 금융의 선순환 구조 확립	- 가계부채 연착륙, 중기전담 지역은행 육성 - 수요자중심 서민금융 확립 - 투자은행 기능 활성화, 금융의 글로벌화
③ 인적자본 고도화	⑥ 인적 자원의 경쟁력 제고	- 수요자 맞춤형 교육으로 혁신 - 평생교육훈련 시스템의 내실화 - 여성 경제활동참가 활성화
	⑦ 고용의 유연안정성 강화	- 직무급 도입과 임금의 유연화 - 탄력근무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실업급여 보완 등)
④ 행복 인프라 확충	⑧ 공동체 인프라 투자 확대	- 보육 교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 확대 - 주거복지 향상 (농촌 그린주택 보급 등) - 공동체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
	⑨ 사회 자본 고도화	- 신뢰, 통합, 법치, 노블레스 오블리주 - 통합의 정치 리더십, 선진화된 시민의식 - 일자리 정부, 투명한 정부, 깨끗한 정부
⑤ 남북 경제협력 내실화	⑩ 한반도 공동체 상생 발전	- 정경 분리 기본원칙 확고히 - 정치적 신뢰, 남북 경제협력 체제 공고화 - 사회문화 통합기반 확충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2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1	-0.3	-0.4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2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7.8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10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10월 19일	10월 25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77	1.82	0.05%p
	엔/달러	81.19	80.66	77.66	79.33	79.85	0.52 ¥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3075	1.2965	-0.011\$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3,344	13,104	-240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9,003	9,055	5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2.81	2.81	0.00%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03.3	1,098.2	-5.1 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943.8	1,924.5	-19.3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10월 19일	10월 25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90.07	85.85	-4.22\$
	Dubai	88.80	106.75	104.89	110.21	106.76	-3.45\$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06.05	297.74	-8.31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E)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8	3.4	3.6	2.5	3.5	
	민간소비 (%)	2.9	1.6	2.3	1.3	2.9	
	건설투자 (%)	-7.1	-3.0	-5.0	-0.2	2.5	
	설비투자 (%)	8.9	-1.1	3.7	1.6	5.6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310	260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263	268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5,488	6,026
		(증가율, %)	23.6	14.9	19.0	-1.2	9.8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5,225	5,758
		(증가율, %)	26.7	20.2	23.3	-0.4	10.2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4	2.6	
실업률 (평균, %)		3.8	3.0	3.4	3.3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25	1,09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